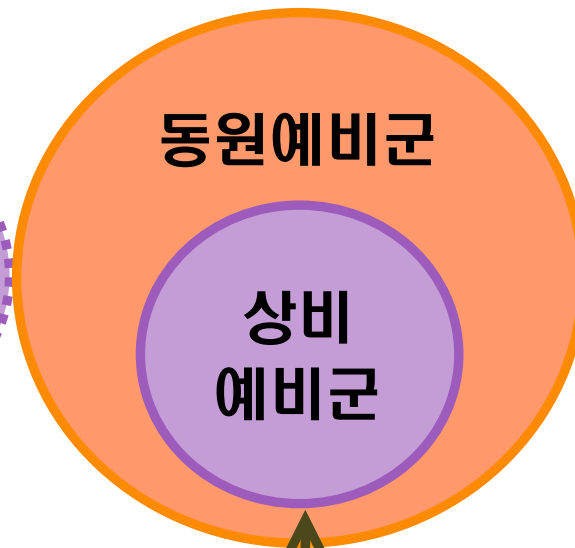


# 국방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

국방대학교 강 용 구

# Key-word : 상비예비군

현역



+



예비군

평시 전력관리와 전시 즉응태세를 연결하는  
중간 전력(in-between force)의 성격

예비역(장교~병) 중 지원자를 전투력 발휘 핵심직위에 선발하여,  
평시부터 소집·훈련하며, 임무수행 Team-work 제고,  
전시 동일직책에 동원하여 운용하는 제도

# 순서

---

01. 국방환경 변화와 예비전력
02. 주요 국가의 예비군 제도
03. 現 상비예비군 제도 성과와 한계
04. 상비예비군 제도 미래 발전 방향
05. 마무리

# 01. 국방환경 변화와 예비전력 (1/2)

## ● 급변하는 안보정세



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 
러시아 16만명 추가 동원('25. 7월)



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장기화  
미국 주도 전쟁 종식 평화 구성 착수



미-이스라엘-이란 전쟁('26. 2. 28)  
이스라엘 예비군 10만 명 동원(3.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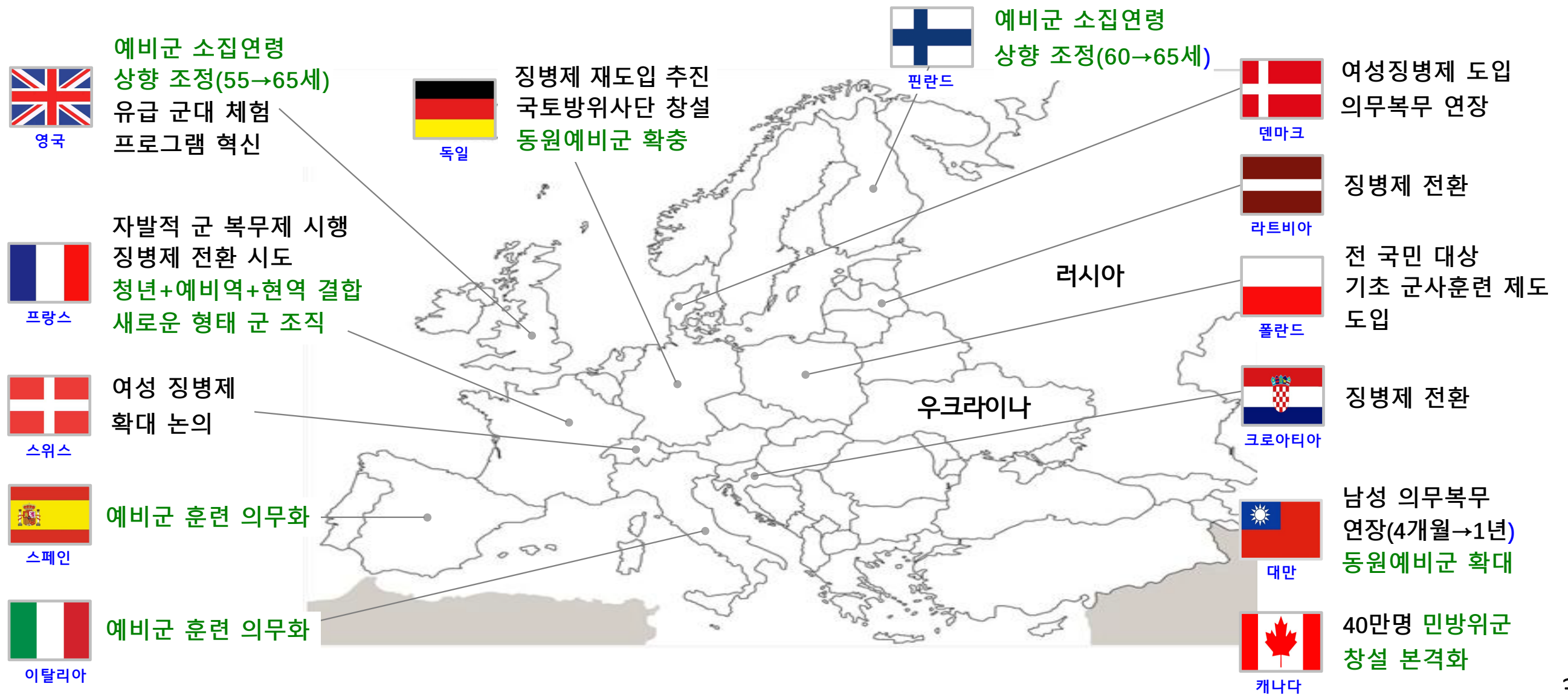


'24년 출산율 OECD 38개국 중  
최하위, 병역자원 급감 중

- 미-중 패권 경쟁 지속, 북-러 군사협력(북한군 파병, 군사기술 이전 등) 강화 등 역내 불안정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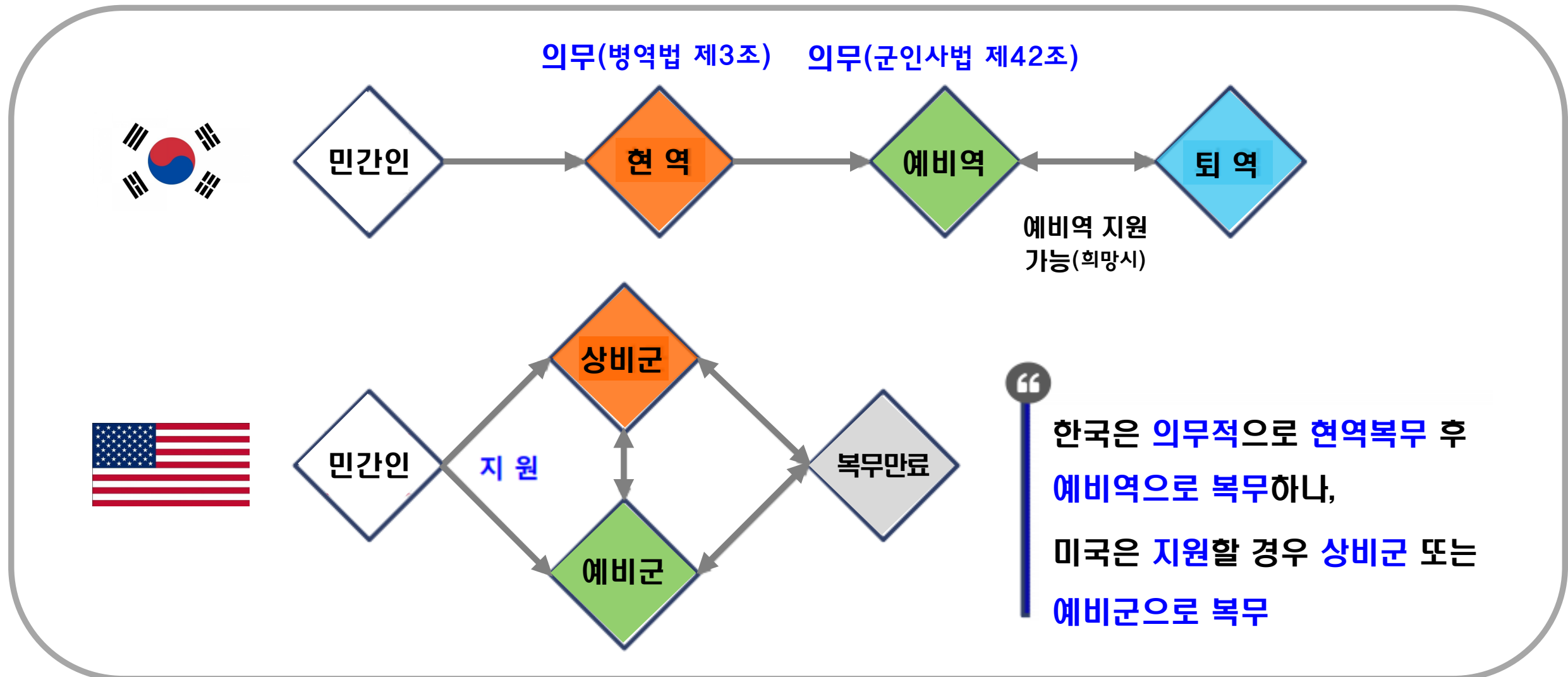
# 01. 국방환경 변화와 예비전력 (2/2)

## ● 급변하는 안보정세 → 국방력 유지 위한 예비전력의 필요성 재조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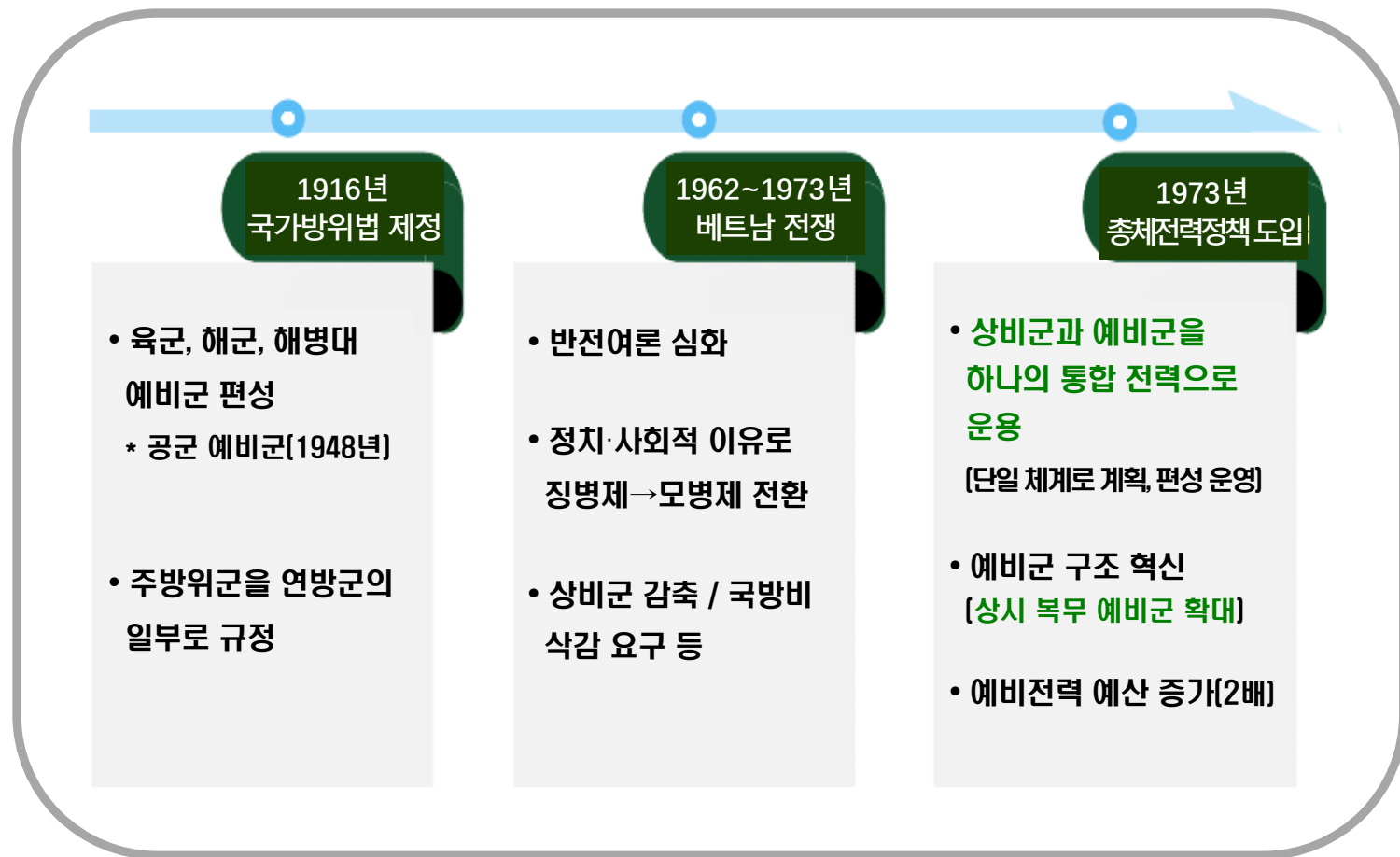
## 02. 주요 국가의 예비군 제도 (1/5)

### ● 한국과 미국의 예비군 제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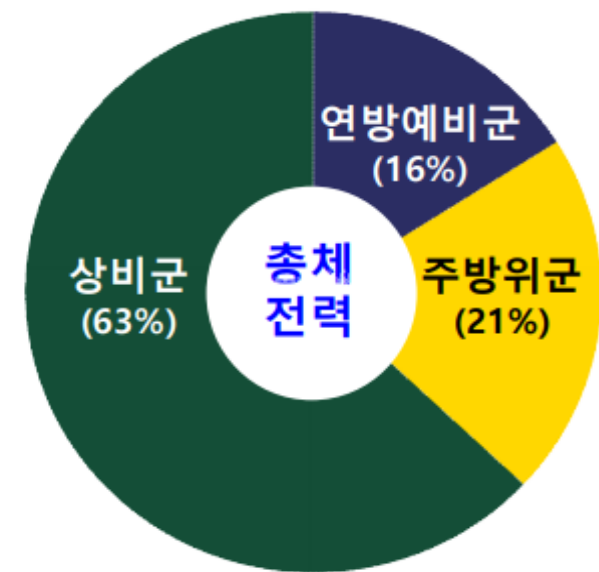


# 02. 주요 국가의 예비군 제도 (2/5)

## 미 예비군제도 변화



## 미군의 총체전력정책 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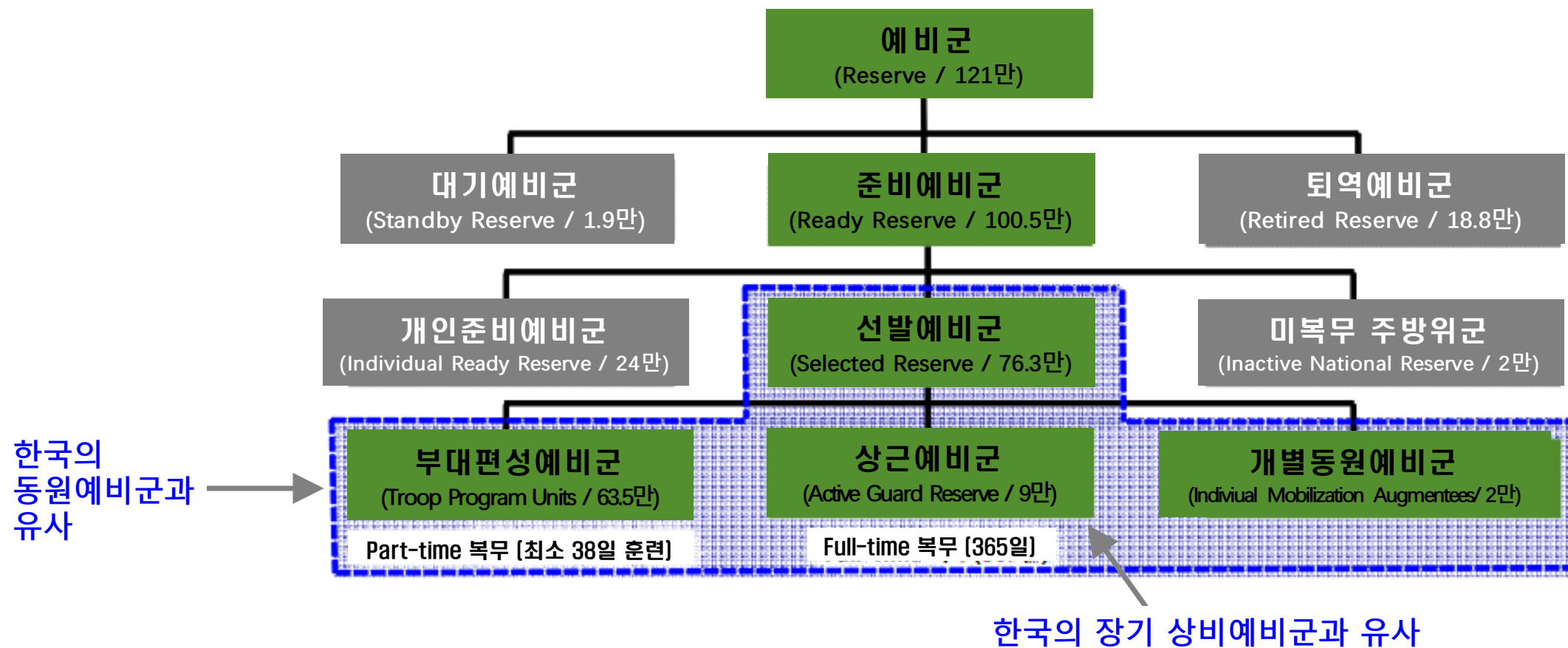
- ◆ 상비군의 동반전력으로서 예비군에 대한 인식개선
- ◆ 국방예산의 9%로 총병력 37% 수준의 예비군 유지
- ◆ 예비군 장비·물자를 상비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

## 02. 주요 국가의 예비군 제도 (3/5)

- 미 예비군 구조 : 연방예비군과 주방위군으로 구성

- 연방예비군 : 전투지원 / 전투근무지원부대로 구성, 전·평시 상비군 지원(대통령 통제)
- 주방위군 : 전투부대로 구성, 평시 주방위 / 재난 대응(주지사 통제), 전시 상비군 증원(대통령 통제)

- 미 예비군 편성 구분



## 02. 주요 국가의 예비군 제도 (4/5)

### ● 미국 예비군 복무기간

- 미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8년, 최초 지원 시부터 현역 또는 예비군(연방예비군, 주방위군) 선택
- 계약에 의해 다양한 조합의 복무 선택 가능

범례 : 선발예비군 선발·개인준비예비군

구분	신분		현역				예비군			
			1년	2년	3년	4년	5년	6년	7년	8년
미국	장교	상비군	4년				+2년		+2년	
		예비군					6년		+2년	
	병	상비군	2년		+6년					
			3년			+5년				
			4년				+4년			
			5년					+3년		
		예비군	6년					+2년		

구분	신분	1년	2년	3년	4년	5년	6년	7년	8년
한국	현역 (병)	예비군 (동원)				예비군 (지역)			

## 02. 주요 국가의 예비군 제도 (5/5)

### ● 이스라엘

- 평시 상비군은 억제 · 신속대응군 역할, 전시에는 동원 · 소집된 예비군부대가 주력으로 임무수행
- [예비군 편성] 현역복무 후 예비군부대로 편입, 사단 내 현역과 예비군으로만 각각 편성된 여단 혼합 편성
- [예비군 훈련] 3년간 연 최대 54일(병) ~ 84일(장교) 범위 내 소집 · 훈련

### ● 싱가포르

- 사단 내 현역여단과 예비군여단 혼합 편성

구 분	3사단	6사단	9사단
현역 / 예비군	40% / 60%	30% / 70%	10% / 90%
예하부대	현역 1개 여단 + 예비군 2개 여단, 예비군 3개 여단		

- [예비군 편성] 2년간 현역복무 후 10년 간 예비군부대로 편성 / 대대단위로 소속과 보직 고정
- [예비군 훈련] 훈련기간은 10년, 연간 14일 ~ 최대 40일 훈련

### ● 시사점

- 상비군 + 예비군 전략적 편성, 국가총력전 수행의 핵심 / 실질적 전투력 발휘 핵심 전력
- 총체전력의 한 축으로서 예비군 역할과 위상 재정립, 예비군을 국군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
- 한국 예비군 훈련기간 확대 현실적으로 불가능, 과학화훈련장 구성 / 과학화훈련 기법 적용 실전적 훈련 효율성 제고

# 03. 現 상비예비군 제도 성과와 한계



주특기훈련



포병사격



시가지전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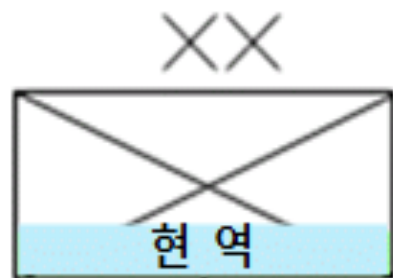
쌍룡훈련

# 03-1. 現 상비예비군 제도 개관 (1/3)

## ● 상비예비군 제도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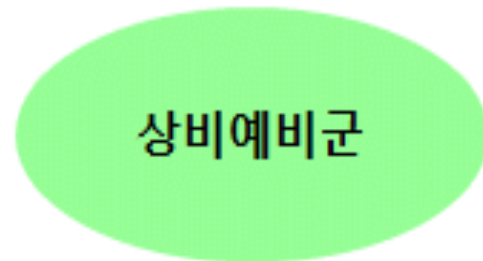
전시 신속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, 평시부터 준비가 필요한 주요 직책에 예비역(장교~병)을 연간 최대 180일 범위 내 소집하여 훈련 시키는 제도

## ● 시행 목적 : 동원위주부대의 조기 전투력 발휘 보장



현역 편성률 저조  
(예 : 동원사단 약 8%)

+



평시	전투준비태세 보완
전시	동원속도 증가

- ① 평시 주요직위자 소집훈련 확대
- ② 부대 증편 및 창설계획 등 발전
- ③ 현역·예비군 통합훈련 강화

※ 동원보충대대(평시 편성률 0%)

# 03-1. 現 상비예비군 제도 개관 (2/3)

## ● 운용 경과



※ 상비예비군 현황 : 2026년 현재 전군 3,190명

구분	계	육군	해군	해병대	공군	국직
계	3,190	3,103	28	41	18	-
장기 상비예비군	260	253	2	5	-	-
단기 상비예비군	2,930	2,850	26	36	18	-

# 03-1. 現 상비예비군 제도 개관 [3/3]

## ● 상비예비군 운용



### 복무기간

(단기) 연간 **30일** 이내  
(장기) 연간 30일 초과, **180일** 이내



### 대상 및 선발

예비역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  
**1년 단위** 선발(병~중령)



### 훈련참가비

(단기) 평일 10만원, 휴일 15만원  
(장기) 1일 15만원

구분	단기 상비예비군	장기 상비예비군
대상	예비역 병장 ~ 중령	
운용개념	예비군 위주부대 주력 기간요원으로 운영	단기 상비예비군의 장기 관리자로 선발 / 운영
업무성격	하위 전투제대 현장지휘, 전투장비·물자 단순관리	부대창설, 작계발전, 부대지휘 등 장기·지속·전문성 업무
복무기간	<b>연 30일 이내</b> * 15, 30일	<b>최대 연 180일</b> * 70, 100, 140, 180일
보상	평일 10만원, 주말 15만원 * <b>연 160만 원</b>	평일·주말 15만 원 * <b>180일 복무자 연 2,700만 원</b>

# 03-2. 現 상비예비군 제도 운영성과 (1/3)

## ● 주기적 평가를 통한 제도 효과 입증

- 내부평가 : 육군 분석평가단(4회), 동원전력사령부
- 외부평가 : 마크로밀엠브레인,  $\pi$ -TOUCH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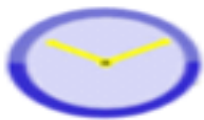
## ● 전투준비태세 유지

### 전투준비태세 확립



전투준비태세 수준

63% ⇨ 76% [▲13%]



투입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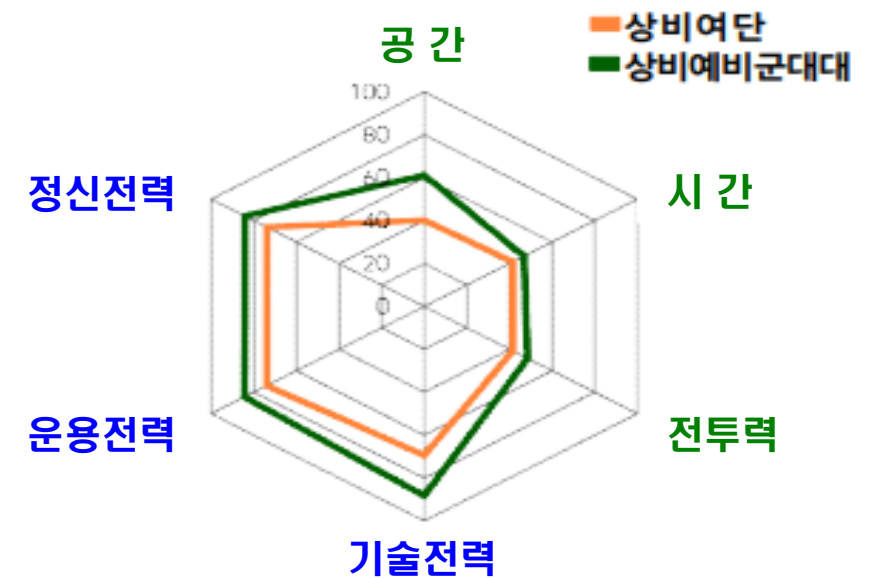
110H ⇨ 78H [▼32H]

### 장비·물자 관리 향상

청구, 교체, 반납률 향상 [▲240%]

예방정비 능력 향상 [▲120%]

## ● 전투효과



✓ 상비여단 대비 전투효과 7.27% ↑  
무형전력 12.1%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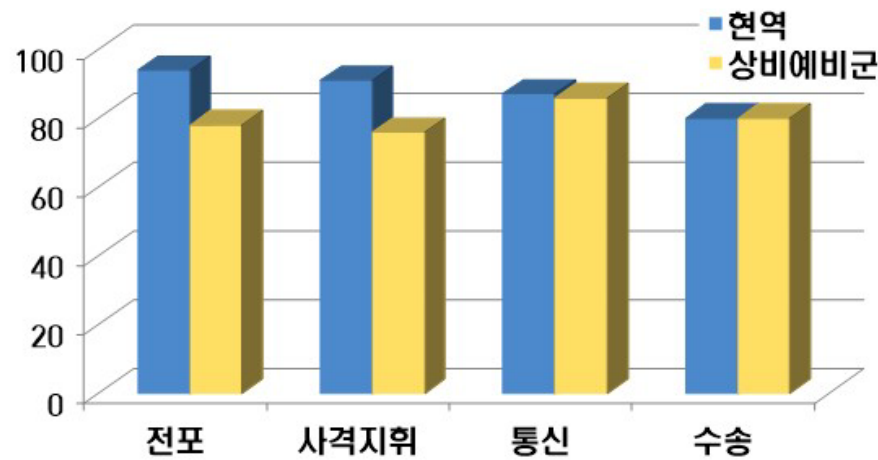
# 03-2. 現 상비에비군 제도 운영성과 (2/3)

## ● '23년 상비에비군 집중편성 부대와 일반편성 부대 비교 평가결과

Ⓜ : 우수(90% ↑) Ⓜ : 보통(80% ↑) Ⓜ : 미흡(80% ↓)

구 분	개인 / 팀 평가			부대평가		
	평가요소	시험부대	비교부대	평가요소	시험부대	비교부대
내 용	통신/ATCIS 운용	Ⓜ	Ⓜ	작전계획 발전	Ⓜ	Ⓜ
	교관임무 수행	Ⓜ	Ⓜ	전투준비태세	Ⓜ	Ⓜ
	주요화기 운용	Ⓜ	Ⓜ	전시완편하 FTX	Ⓜ	Ⓜ

## ● '25년 장기 상비에비군 집중편성 부대 운영 → 현역 대체 가능성 검증



포 병

기 갑



'25년 육군  
최정예 300 전투원  
60사단 전차대대  
상비에비군  
'최정예 전차팀 선발'

## 03-2. 現 상비예비군 제도 운영성과 (3/3)

### ● 운용성과 총평

- ◆ 병역자원 급감,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구조 / 병력구조 제한사항 극복
  - ☞ 전시 증편 · 창설부대 동원속도 단축 /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
- ◆ 평시부터 부대 전투준비태세 수준과 훈련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
- ◆ 비용 대 효과 측면 적은 예산으로 성과 달성 ☞ **경제적인 군 운용에 적합한 제도**

☞ 군 경력(전문성) + 사회생활(다양성)이 군 전투력에 시너지 효과 창출



# 03-3. 現 상비예비군 제도의 한계

## 교리 법령

- 상비예비군 운용 교리 부재
- 운용 확대 위한 법령 / 제도 미비
- 국군조직에 상비예비군 미포함

## 구조 편성

- 동원사단 / 동원보충대대 위주 편성
- 장비조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투지원 / 전투근무지원부대 소수 편성

## 인적 자원

- 병역자원 감소로 예비역 자원 부족 (하위계급 지정)
- 現 정원, 계급, 진급 체계로는 자원 충족 제한

## 훈련

- 현역부대의 동원훈련 통제(예비군) 부담 과중
- 휴일위주 상비예비군 훈련(연 15일)으로 임무숙달 제한

## 정책 예산

- 병 봉급, 노임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'16년 이후 훈련비 동결
- 연 최대 180일 복무하지만 별도 지원 없음 (보험, 수당, 휴가 등)

## 04. 상비예비군 제도 미래 발전 방향



# 04-1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필요성 (1/5)

## ● 현대전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



# 04-1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필요성 (2/5)

## ● 최근 전쟁 양상과 예비군 역할

###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

- 상업용 우주 활용, 드론·AI 등 첨단기술 본격 투입, 하이브리드전·정보/인지전·드론전 등 복합적 양상
- 전쟁 장기화는 병력 부족 문제 노정
  - 우크라이나 : 총동원령·TDF·시민 동원으로 대응
  - 러시아 : 부분동원령, 30만 명 이상 예비군 동원
- 첨단기술이 전쟁 양상 변화시키고 있음에도, 장기전에서는 병력/예비군 자원 지속력이 전력 유지 핵심
- ☞ 러-우 전쟁은 예비군의 전쟁 지속능력·전력 보충 역할이 여전히 미래전에 필수적임을 시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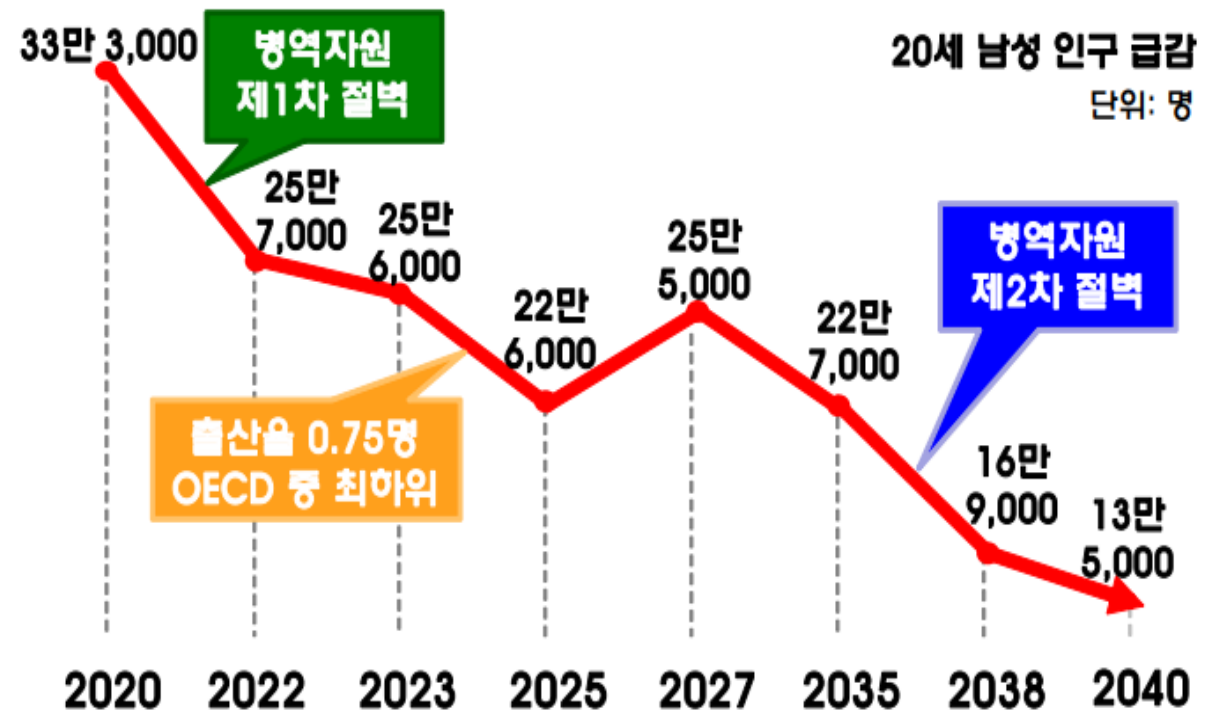
###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

- AI, 드론, 정밀타격체계가 적극 활용된 기술집약적 현대전 양상
- IDF는 로봇·무인 장비로 지하터널 파악 등 인명 피해 최소화 추구
- 생성형 AI 확산으로 정보 왜곡·인지전 심화
- 복잡한 하이브리드 환경 속에서도 경험·훈련된 예비군이 작전 핵심 인력으로 활약, 첨단 무기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의 중요성 확인
- ☞ 전쟁 발발 직후 예비군 30만 명 긴급 소집, 전선·후방 방어 및 공세 지원에 투입 → 대규모 동원이 여전히 국가 방위의 핵심 수단임을 입증함

- 예비군은 장기전뿐만 아니라, 단기 고강도 충돌에서도 즉각적 전력 보충과 작전 지속능력 담보하는 핵심 자원으로 작동
- 첨단기술 시대에도 예비군과 같은 인적 전력의 존재가 현대전 필수 조건임이 입증됨

# 04-1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필요성 (3/5)

## ● 병역자원 감소 추이



## ● 병역자원 감소가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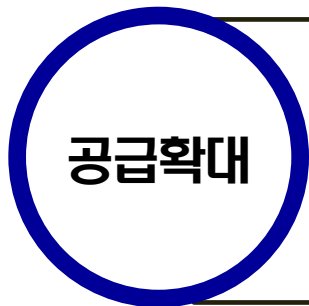
- ◆ 국방개혁에 따라 상비병력 47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
- ◆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향후 병력수급 차질 예상
- ◆ 2040년에는 現 상비병력 규모 유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◆ 현역복무 후 예비군 복무 구조상 예비군자원도 급감 예상 ('25년 265만→'35년 150만→'40년 136만)

# 04-1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필요성 (4/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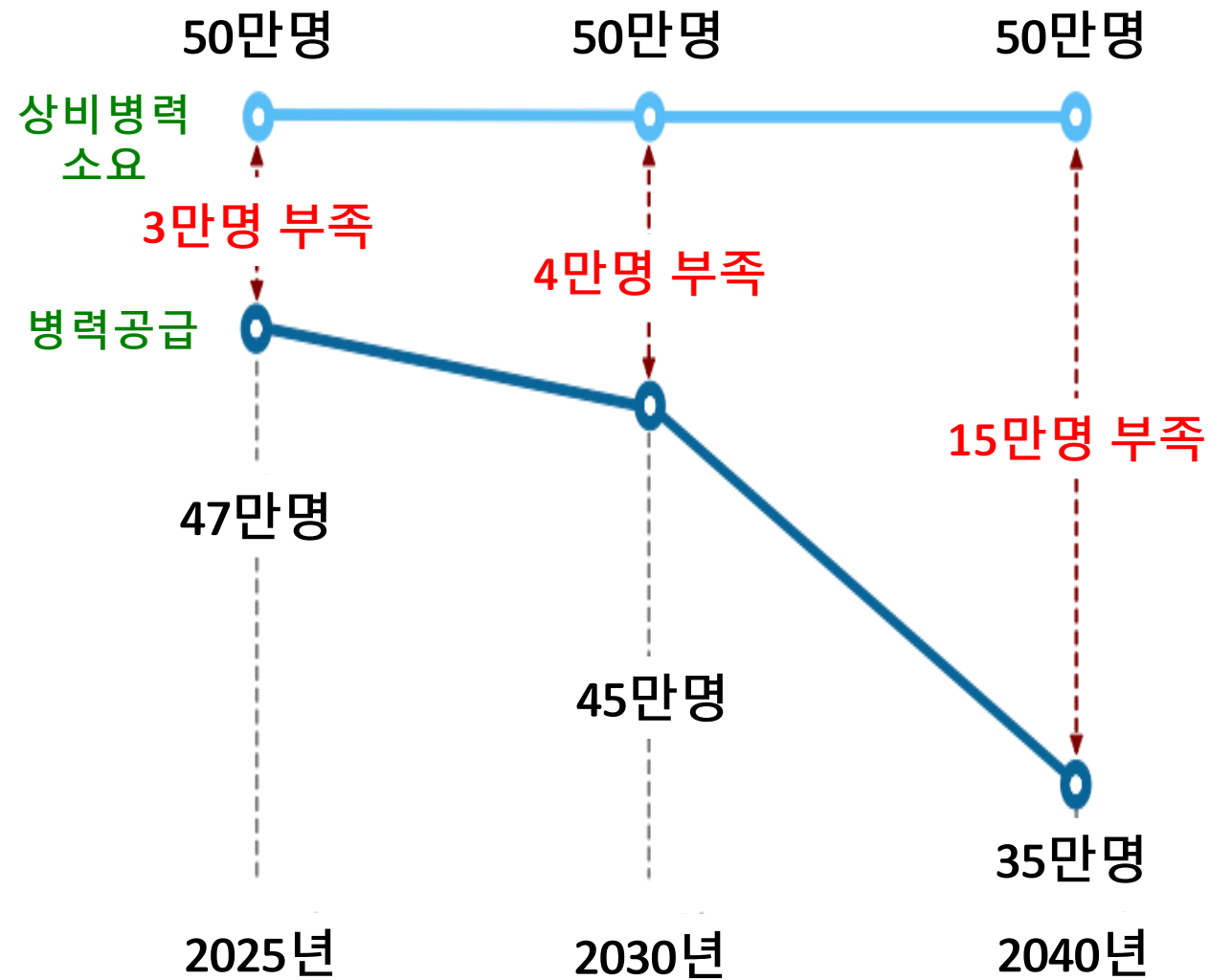
## ● 상비병력 규모 유지를 위한 대책



국방환경 변화 / 작전소요 예측 제한  
북한 위협 등 고려 시 **상비병력 소요감축 현실적으로 제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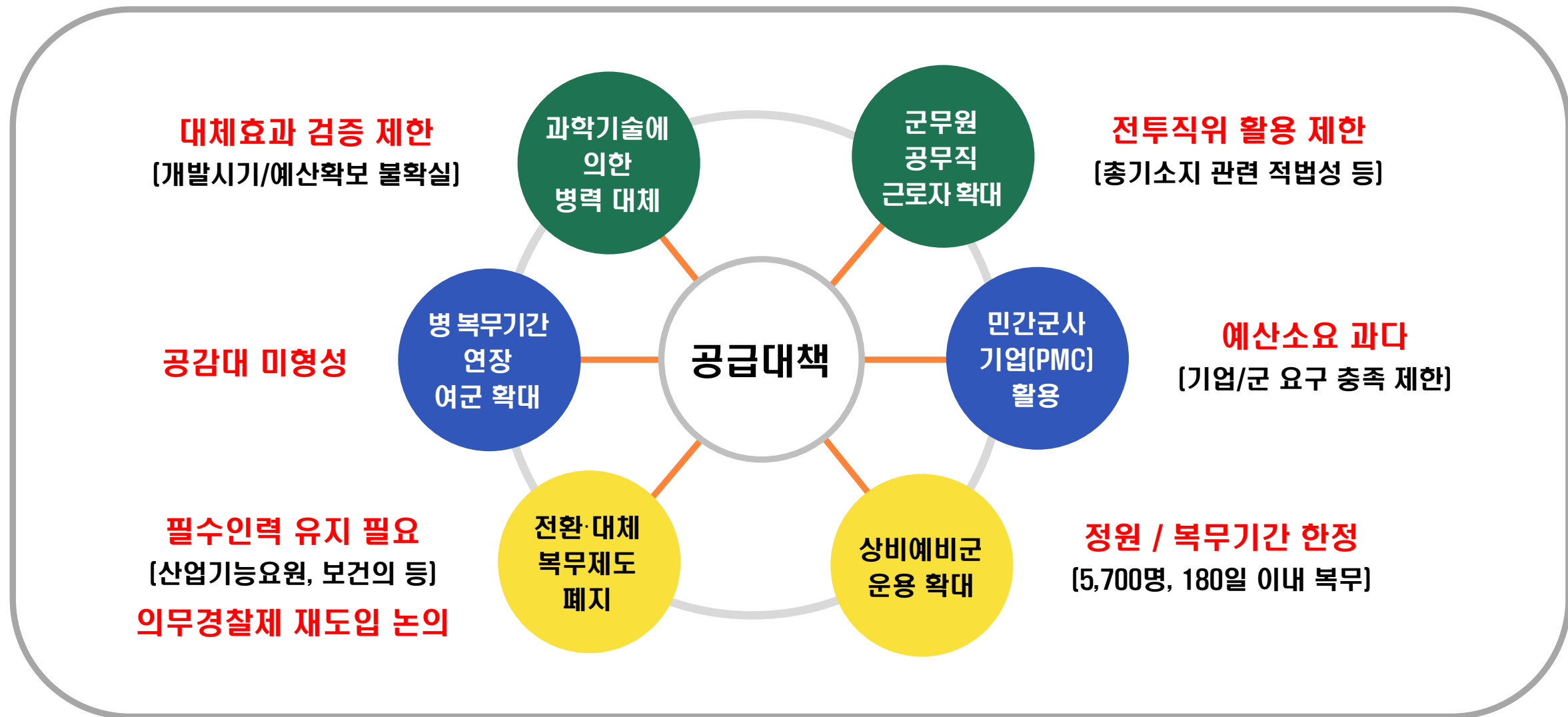


2040년 예상 병력은 35만 명으로  
**소요(50만명) 대비 15만명 부족하여 공급 확대 제한**



# 04-1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필요성 (5/5)

## ● 국방인력 확대 위한 다양한 공급대책 / 현실적 문제



#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(1/13)

### ● 목 표

- ◆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, 상비예비군 정원 확대 / 운영방법 최적화 → 전시 임무수행태세 완비
- ◆ 우수자원 확보 위한 인력 Pool 확대, 다양한 복무혜택 부여로 자긍심 고취

### ● 운영개념

- 기본적으로 연 최대 180일 훈련(Full-time)하는 장기 상비예비군 중심으로 확대
- 연 3~4일 훈련하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지원에 의해 연 최대 180일까지 추가로 복무·훈련하는 상비예비군을 예비군 위주 부대에 편성·운영 →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유지
- 장기 상비예비군은 동원부대의 주력 예비군 역할, 단기 상비예비군은 전투력 발휘의 핵심으로 훈련에 집중

### ● 운영방법

- 장기 180일(장기적으로는 365일 복무) / 단기 30일로 단일화 추진, 훈련과 복무를 혼합한 형태
- 선발 / 운용기간을 1년 → 다년으로 개선, 연장 희망 시 심의에 의거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(2/13)

## 훈련과 복무의 개념 설정

### 훈련

- 평시 민간신분 유지, 훈련이 종료되면 다시 민간신분 복귀
- 전시 또는 위기시 즉각적인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, 전투기술, 작전절차, 임무수행 능력 숙달하는 군사적 준비 활동
- 전투력 형성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

### 복무

- 예비역 신분을 기반으로 하되, 일정 기간 동안 군 조직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어 지속적/반복적으로 군사적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는 상태
- 단순히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, 군의 지휘/통제 체계 하에서 상시적 또는 정기적 근무/대기/훈련/임무수행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
- 법적 신분과 의무의 확장
  - 복무기간 동안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특수신분
  - 지휘/복종 관계, 복무규율, 징계/보상/안전보장 체계 적용
- ☞ 복무는 훈련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립

### ● 운영방법

- 장기 180일 / 단기 30일로 단일화 추진, 훈련과 복무를 혼합한 형태
- 선발 / 운용기간을 1년 → 다년으로 개선, 연장 희망 시 심의에 의거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(3/13)

## ● 구조 · 편성

◆ 전시 초기 주요임무수행 부대는 현역 위주 편성, 동원사단 / 동원보충대대 상비예비군 집중 편성  
(現 상비사단 미편성, 동원위주부대 3% 내외 편성)

- 상비여단 : 2개 대대(현역 100%)+1개 대대(상비예비군 ±10%)
- 동원위주부대 : 쉰 부대 상비예비군 편성  
\* 동원사단 10~12%, 동원보충대대 5~8%

◆ 전투지원/전투근무지원부대 상비예비군 확대 편성  
(現 전투부대, 전투직위 위주로 편성)

- 공병, 정보통신, 수송 등 전시 소요가 많고, 전시 확장비율이 높은 부대에 상비예비군 편성 확대

## ● 부대유형별 병력구조 판단(안)

“ 발표자료 참조 ”

#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(4/13)

### ● 구조 · 편성 예비군 위주 부대 설계

- 상비병력 감축 충격 상쇄, 전시 필요한 부대 유지 / 전투력 발휘 위해

 부대 유형별 특성 고려 적정수준의 현역 · 예비군 혼합 편성 필요

“ 발표자료 참조 ”

- **평시부터 훈련가능한 상비예비군 중심부대 편성**

-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 가능
-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보장 가능

- **개편되는 부대는 '장기 상비예비군' 중심으로 편성**

- 장기 상비예비군은 단기 상비예비군과 동원예비군을 관리 / 훈련시키기 위해 **핵심직위 인원으로 편성**



**완전예비군대대 편성** (평시부터 실체가 있는 부대)

#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(5/13)

### ● 구조 · 편성 👉 동원사단 '완전예비군대대' 추진

◆ 목표 : 예비군 위주 부대 편성 / 운영, 효율적인 임무 · 편성 · 운용개념 도출

👉 최종상태 : 완전예비군대대 최적의 전 · 평시 임무와 편성, 여건조성 소요 도출

◆ 시범 기간 : '26년 1월 ~ '27년 12월

◆ 시범 부대 : 73사단 203여단 3대대(현역 1%, 상비예비군 9%), 206여단 2대대(현역 0%, 상비예비군 10%)

● 임무 설정 : 교육훈련, 전투장비 / 물자관리, 동원훈련 주도, 작전계획 토의 / 발전 등

● 편성 : 주요 전투기능 / 무기체계 중심, 평시 팀 / 제대단위 훈련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

• [단기 상비예비군] 박격포, 대전차무기 등 2박 3일 동원훈련으로 전투준비가 부족한 무기체계 운용 직위 위주 선정

• [장기 상비예비군]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계획 수립, 장비 유지, 작전계획 구체화 등의 임무수행 직위 위주 선정

● 성과 측정 : 외부평가(국방부, KIDA, 국방정신전력원), 내부평가(동원전력사령부, 사단)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[6/13]

## ● 훈련참가비 등 예산·정책

### ◆ 훈련(복무)에 따른 적정 급여 / 수당 지급

(現 단기 평일 10만원, 휴일 15만원 / 장기 평·휴일 15만원)

-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 이상으로 급여(훈련참가비) 인상
- 탄약관리, 장비정비 등 복무자에게 위험·기술수당 지급

### ◆ 상비예비군 복무유형에 맞는 혜택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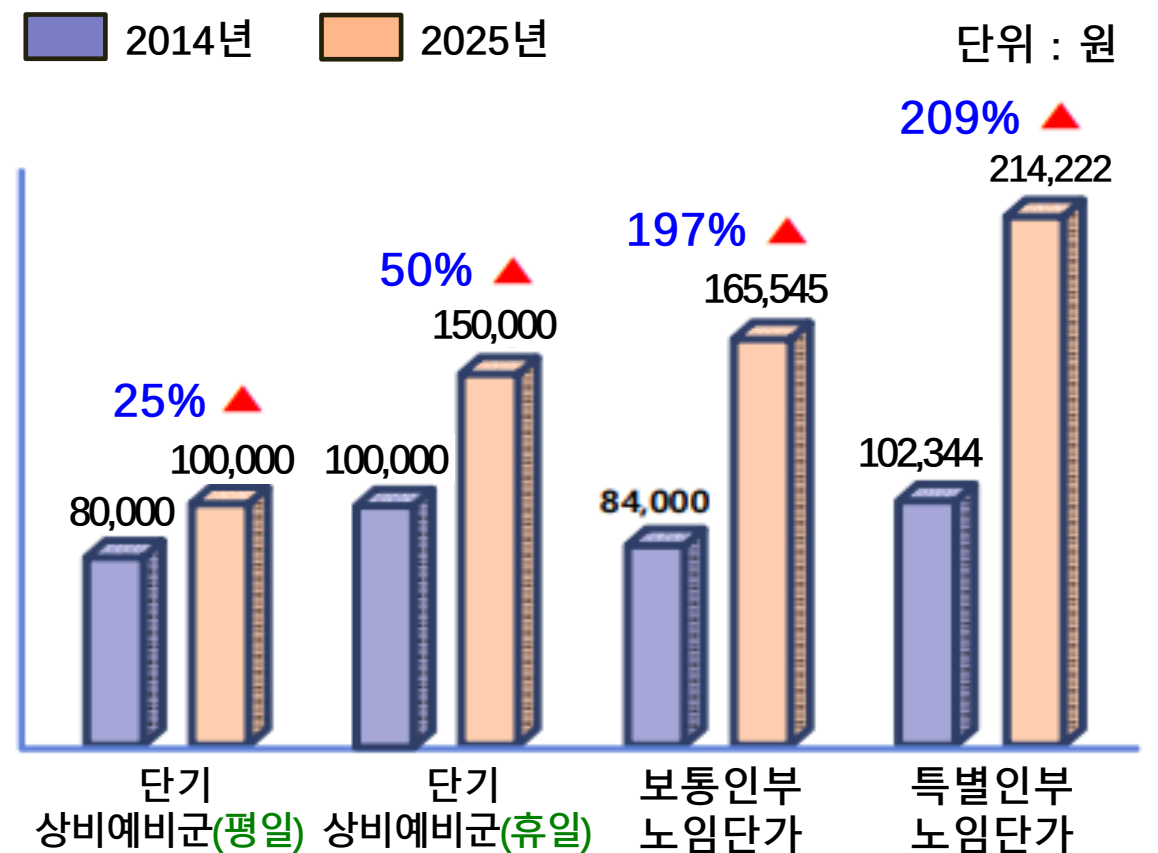
(現 군마트/쇼핑몰 이용, 장기 상비예비군 피복 지급)

- 장기 상비예비군 군 숙소, 직장보험 등 지원 검토
- 단기 상비예비군 피복(전투복, 전투화 등) 지급

### ◆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소속 기업체 인센티브 제공

- 세제 혜택, 임금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방안 검토
- 우수 기업 국방부 인증서 수여/로고 기업 홍보 사용(美)
- 정부 계약 입찰 시 '사회공헌군 복무 지원' 가점 부여(美)

## ● 現 상비예비군 훈련참가비



## ● 연간 보수 : 장기 상비예비군 180일 복무자 2,700만 원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(7/13)

## ● 교육훈련

### ◆ 상비예비군 훈련(복무) 기간 확대

- 단기 상비예비군 : 現 15일(동원훈련 포함) → 30일
- 장기 상비예비군 : 現 180일 이내 → 31~365일
- \*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과목에 드론 교육 반영, 자격 취득 추진('25년 80명 취득)

### ◆ 직무보수교육 포함 다양한 교육훈련 모델 정립

(現 대대장 소집교육 외 별도 직무/보수교육 미실시)

- 쏘 상비예비군 대상 예비전력교육단 실무교육 시행
- 장기 상비예비군 대상 병과학교 등 보수교육 시행
- \* 장기 상비예비군 주도 하 단기 상비예비군 부대훈련계획 수립 / 시행방안 구체화

## ● 상비예비군 교육훈련 방안

장·단기 (실무교육)	 예비전력교육단	• 쏘 상비예비군 : 1주	
+			
장기 (직무보수교육)	 병과학교 / 육군대학	• 상근복무자 : 1개월 • 180일 이상 복무자 : 2주	
+			
장·단기 (부대훈련)	 각 부대	• 장기 : 훈련계획 수립,통제 • 단기 : 개인→팀→전술훈련 • 일반예비군 : 동원훈련 참여	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[8/13]

## ● 자원 확보

### ◆ 상비예비군 선발 계급 확대(現 병장~중령)

- 평시 미보직 / 전시 직위에 활용
- 전시 창설부대(군수부대 등) 지휘조직에서 평시부터 활용

### ◆ 상비예비군 진급체계 정립

- 現 1회 진급 → 2~3회 진급방안 검토
- 상비예비군 경력평가(복무기간, 훈련결과 등) 반영

### ◆ 퇴역간부 예비역 지원제도 연계 상비예비군 지원자 Pool 확대

- 군인사법 일부개정, '25. 7. 8부 시행  
병역법 일부개정, '26. 2. 27부 시행  
(퇴역 예정 또는 이미 퇴역한 간부가 희망시 예비역 편입 가능,  
최대 60세까지 복무 → 18.5만 여명 인력 Pool 확보)
- 예비역 편입 후 상비예비군 복무시 수당 등 지급 검토

## ● 예비역 간부 동원지정 현황

“ 발표자료 참조 ”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[9/13]

## ● 제도 홍보 / SC 강화

### ◆ 제대별 역할 / 중점

- 국방부 : 홍보예산 반영,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여건 조성, 홍보 지침 예하부대 하달
- 각군 : 홍보 세부전략 하달, 부대별 홍보일정 협조 / 예산 확보
-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: 현장위주 실효적인 홍보활동 추진, 전문 홍보요원 양성 / 운영

### ◆ 대상별 / 시기별 맞춤 홍보 추진

구분	현역	예비역(군)	퇴역
	전역 전 자원	전역 후 자원	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역병교육 프로그램 반영</li> <li>• 국방전직교육에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로교육, 전직지원교육</li> </ul> </li> <li>• 취업박람회장 홍보부스 운용</li> <li>•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부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역장병 안내서 책자 반영</li> <li>• 모든 예비군훈련시 홍보영상 시청 / 지휘관 안보교육시 반영</li> <li>• 예비군 홈페이지 / 앱 활용</li> <li>• 예비군지휘관 소집교육간 반영</li> <li>• 동원지정자 대상 지휘서신 반영</li> <li>• 제대군인지원센터 연계 홍보</li> <li>• 병무청 연계 홍보</li> <li>• 대학교 프랜카드 설치 등 홍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역장병 안내서 책자 반영</li> <li>• 출신별 동기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 홍보</li> <li>• 자원관리부대에서 알림톡 등 활용</li> <li>• 언론매체와 연계 광고</li> </ul>
공통	대중 매체 / 장소 활용 상비예비군 모집 광고, TV 시사 / 교양 프로그램 상비예비군 출연 등 (포털사이트, 옥외 전광판 광고, 지하철 스크린 도어 /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등)		



**2026년 상비예비군 정시모집**

모집기간 : 8. 25.(월) ~ 9. 21.(일)

- ✓ 선발인원: 단기 3,500여명 내외 / 장기 300여명 내외
- ✓ 지원자격: 예비역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
- ✓ 모집부대/직책: 예비군 홈페이지(www.yebigun1.mil.kr) 공지사항의 모집공고 참조
- ✓ 지원방법: 예비군 홈페이지 「상비예비군 지원」에서 입력  
신원조사(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) 제출필요
- ✓ 혜택: **보상비** 단기 평일 10만원, 휴일 15만원  
장기 평일/휴일 15만원  
**복 지** 연중 충성마트(PX) 이용가능  
**기 타** 예비군 간부 진급 선발시 가산점 부여 등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(10/13)

## ● 신분제도 정비 등 법령 개정

### ◆ 국군의 조직 / 구성원에 포함

- (조직) 現 국군조직법(제2조1항) : 육·해·공군,해병대  
→ 국군조직에 '예비군' 포함하도록 개정
- (구성원) 現 국군조직법(제16조1항) : 군인, 군무원  
→ 구성원에 '상비예비군' 포함하도록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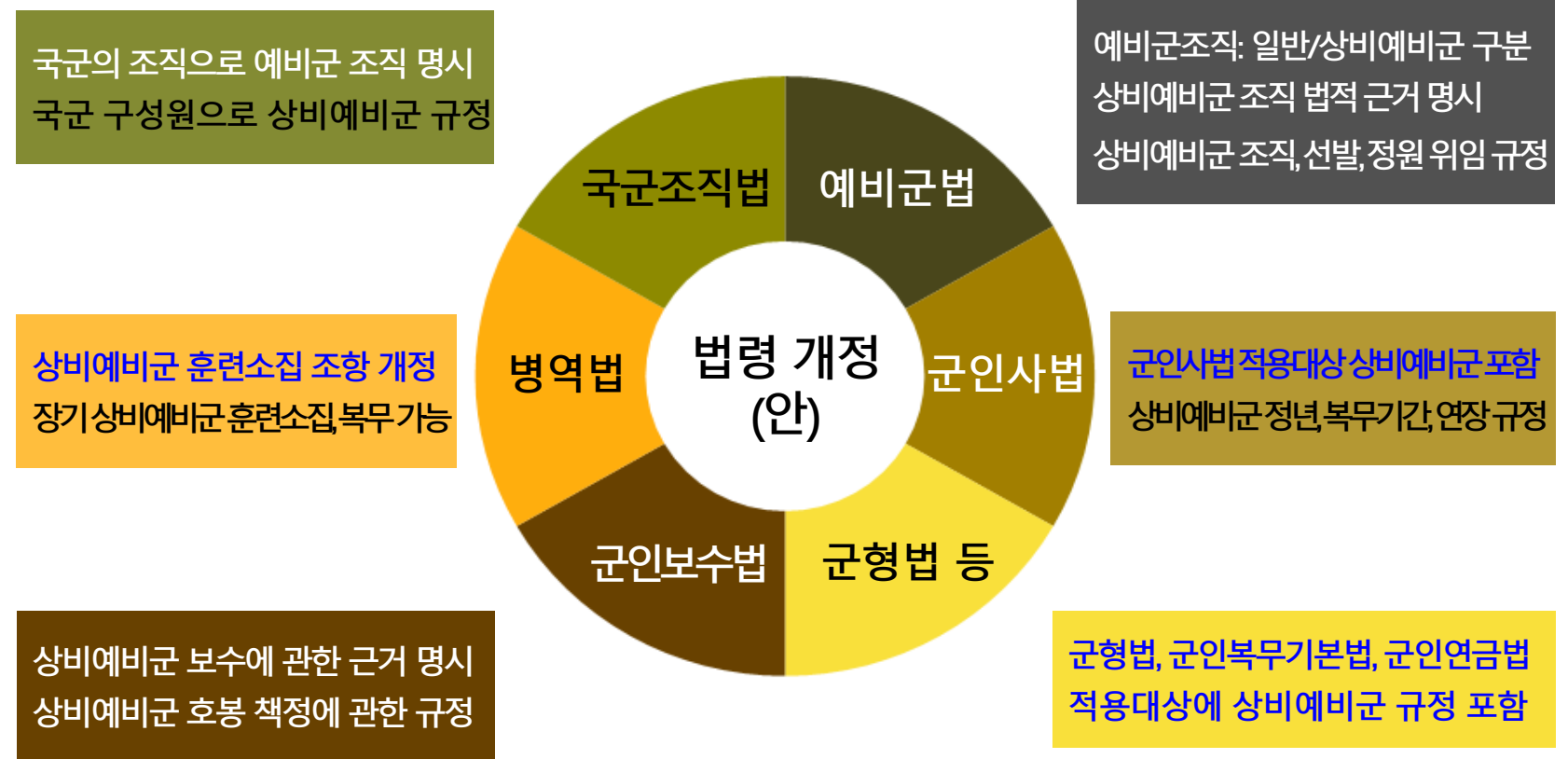
### ◆ '지원에 의한 복무'라는 실질에 맞춰 계약직 등 새로운 복무 형태(Part-time 군인) 반영한 법령 제정

- 가칭 「상비예비군 인사관리법」
- 가칭 「상비예비군 복무 기본법」 등

### ◆ 복무개념 도입 / 정원 확대

- 장기 상비예비군(31~365일)은 훈련과 '복무'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
- 하위 법령(시행규칙, 국방부 훈령)에 '정원규모' 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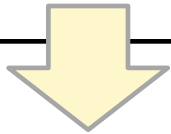
## ● 법령 개정 소요(안)



#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[11/13]

### ● 상비예비군 투 트랙(Two-track) 운용

- ◆ 1st Track - 현재와 같이 전시 편제 예비군 직위에 운용, 규모 확대 / 체계성 제고로 동원준비태세 강화
- ◆ 2nd Track - 현재 현역, 군무원, 공무원 직위 중 상비예비군 직위로 전환 가능성 모색



### 2nd Track - 평시 국방인력으로 상비예비군 운용

- 평시 정원의 구성 인력으로 확대
  - [As is] 현역 + 군무원 → [To be] 현역 + 군무원 + 상비예비군
- 현역 직위 중 상비예비군 직위로의 전환 가능성 모색
  - '18년~'22년 현역 직위 중 비전투분야 직위 군무원으로 전환, 군무원 수 단기간 대량 증가(2.6만명 →4.5만명)
  - 군무원 조직 안정적 인력운영 곤란, 향후 추가적인 상비병력 감축 진행 시 상비예비군도 현역 대체 대안으로 검토
- 군무원 등 민간인력 직위 중 상비예비군 직위로의 전환 가능성 모색

#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[12/13]

### ● 평시 국지전 등 발생시 상비예비군의 역할 확대

#### ● [As is] 동원령 선포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에 따라 소집된 경우에만 역할 수행 가능

- 현재는 부분동원령 또는 총동원령 선포 시 병력동원된 예비군이 역할 수행 가능
- 국지전 등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'병력동원훈련소집'에 의해 소집된 상비예비군의 역할은 제한적임

#### ● [To-be] 평시 적응전력으로서의 상비예비군 역할 확대

- 평시이지만 국지전 등 발생 시 적응전력으로서의 상비예비군 역할 확대 필요
- 이를 위해서는 상비예비군의 소집을 '병력동원훈련소집' 개념이 아닌 '복무를 위한 소집' 개념으로 전환 필요
- 아울러 평시이지만 국지전 등 발생 시, 소집되어 복무 중인 상비예비군에 대한 '부분동원' 적용 검토 필요

# 04-2.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[13/13]

## ● 단계화 추진

구 분	1단계		2단계	3단계	
	'26년	'27년	'28년~'34년	'35년	'40년
규 모	3,700명	6,000명	1.6만명	3만명	5만명
훈련참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단기 평일 10만, 주말 15만원</li> <li>· 장기 15만원</li> </ul>	15만원	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	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	
복무(훈련)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단기 15일</li> <li>· 장기 70~180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단기 15일</li> <li>· 장기 70~180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단기 30일</li> <li>· 장기 180일</li> </ul>	장기 180일 이상~365일 * 연중 현역과 동일 복무 (Full-time)	
제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년 단위 선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다년 단위 선발</li> <li>· 정원제한 폐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역할과 신분정립</li> </ul>		
법 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예비군법」 개정</li> <li>· '상비예비군'으로 명칭 변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정원제한 폐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병역법」 개정 상비예비군 소집조항 삭제</li> <li>· 「군형법」, 「군인복무기본법」, 「군인연금법」 등 적용 대상에 상비예비군 규정 포함</li> </ul>		

# 04-3. 기대 효과

## 교리 법령

- 복무개념 정립, 상비예비군 유형별 운용체계 특화
- 안정적인 제도 운용 위한 기반 마련
- 명예로운 국방의무에 따른 다양한 권리 보장

## 구조 편성

- 동원위주부대 집중편성, 즉각 임무수행능력 향상  
전투지원 / 전투근무지원부대에 속련된  
자원 편성 확대

## 인적 자원

- 전문성을 구비한 다양한 예비역 자원 운용
- 전·평시 주요 직위에 우수한 상비예비군 활용

## 훈련

- 상비전력과 통합훈련, 연중 전투준비태세 확립
- 훈련(복무)기간 확대로 직무수행능력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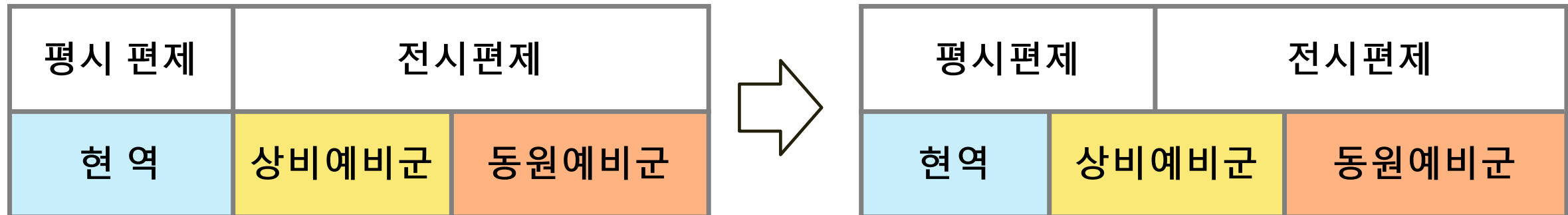
## 정책 예산

-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국가 경제 기여  
상비예비군제도 필요성 사회적 지지 확보
- 상비예비군 지원자 확대 / 훈련(복무) 의욕 고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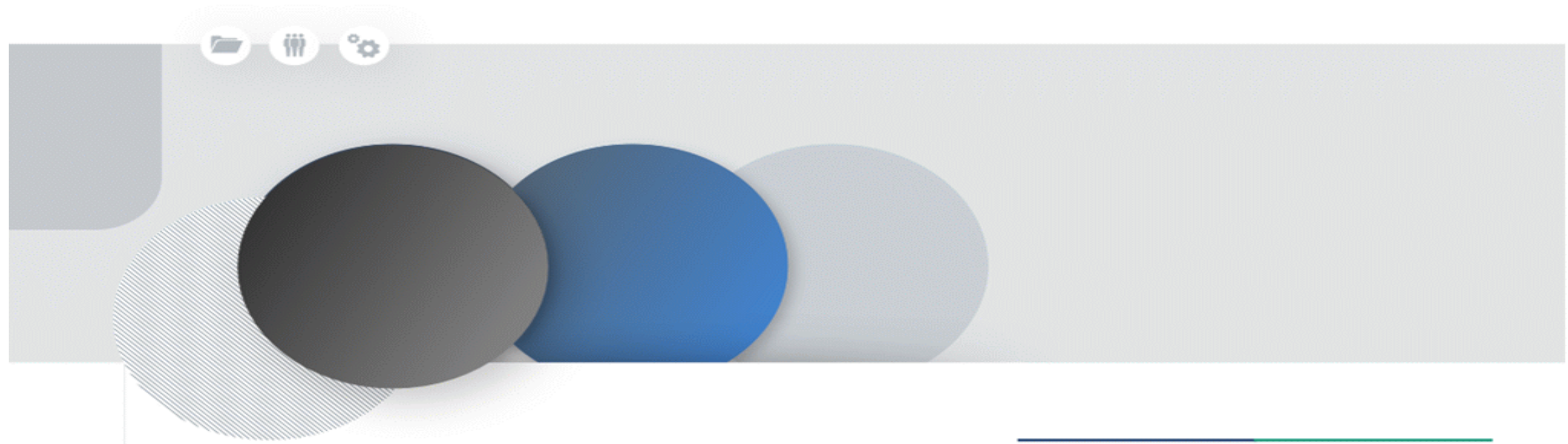
# 05. 마무리

- 상비군예비군 제도 발전의 최종 상태

美 예비군제도와 유사한 형태 → **한국형 상비예비군 제도**



-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공백 문제 해소
- 군 임무수행의 완전성 보장 /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보장



---

**경청해 주셔서  
감사합니다**